

# 이대통령, 재계 만나 “정부 최대 목표는 경제살리기… 함께 힘 모으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내 기업인들을 만나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재계 총수·경제인들과 약 두 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간담회는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 및 구매 계획을 정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관세 협상 과정에서

추, 방미·방일 앞서 국내 재계 총수·경제인 초청해 간담회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기업 어려움…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서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류진 한경협 회장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들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재계도 정부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며 “실력 있고 젊은 창업인을 키워내기 위해 담보 대출보다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간담회 뒤 브리핑에서 “기

업인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 이익과 국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며 “이번 미국 방문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무 경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을 꼼꼼히 경청했다”며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구체적인 금액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액수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나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美·동맹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겸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 아동수당, 매년 1세씩 점진적 확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선지급

복지부, 국회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제출… 출산크레딧 수급→출산 시점으로 검토 중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월수입이 509만원이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깎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8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통해 출산 크레딧 사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

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둘째 자녀를 낳으면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은 1명당 18개월씩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최대 50개월이라는 가입 인정 상한이 폐지된다. 또 현재 출산크레딧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한다. 군복무 크

레딧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추가 가입 기간은 내년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이밖에 노령연금 소득 감액 제도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개시 최대 5년까지 원래 연금액의 50%가 깎이게 된다. 감액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인 A값으로 올해 기준으로 308만9062원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이 깎일 수 있는 셈이다.

이에 정부는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감액

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09만9062원 미만은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8세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해 13세 미만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2018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돼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9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뉴스

## 조경태·안철수 후보 단일화 사실상 불발

조경태 “안 후보, 국민과 당원들의 단일화 요구 외면해”

안철수 “당원과 국민들이 현명하게 표로 단일화해줄 것”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안철수·조경태 당대표 후보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조 후보는 전날 자정까지 시한을 제시했지만 안 후보가 응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쇠신 후보 단일화는 불발에 그쳤다.

조 후보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님께서는 국민과 당원분들의 절실한 혁신후보 단일화 요구를 외면했다”며 “국민 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들이 저 조경태를 혁신 단일후보로 선택해달라”고 했다.

앞서 조 후보는 전당대회 초기부터 안 후보에게 여러차례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쇠신과 후보끼리 힘을 합쳐야 강성 후보와 맞서 승산을 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단일화가 없어도 결선투표를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내부에서도 “지금의 지지세라면 단일화에 굳이 얽매지 않고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는 이날 언론에 출연해 “결선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단일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드문 일”이라며 “당원과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서 맞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표로 단일화를 만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사실상 단일화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앞서 조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방식이나 절차는 안 후보에게 일임할 테니 함께하면 좋겠다”며 “20일부터 투표가 시작되니 오늘 자정까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모바일투표, 21일 ARS투표 및 일반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해 22일 전당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거쳐서 26일 발표한다.

이 같은 일정상 단일화가 성사되면 20일 모바일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19일이 사실상 마지노선이었다.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두 후보는 각자 선거운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부대와 관계자들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조사본부의 지원 하에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관련한 부대들에 대해 비상계엄 시 임무와 역할 등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두루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향후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부 “계엄 관여 부대 자체조사”… 징계·처벌 예고

이어 이는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안규백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내란특검과 별개로 진행되는 국방부 자체 조사다. 12·3 계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계엄 상황에 있었던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군대로 나아가는 과

정”이라고 말했다. 우선적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병력 출동부대 및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언급된 부대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계엄 당시 실제 출동한 부대 뿐 아니라 출동을 준비한 부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합참) 지휘통제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거나 면담하는 등 방법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했다.

조사에는 20여명이 투입된다. 기간은 1~2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원하는데 따라 향후 조사본부의 수사로 전환될 수 있는나는 질문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뉴스

#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 삼부철강(주)